

# 大覺國師 義天과 唯識章疏에 관한 一考\*

A Consideration on the National Teacher, Daegak Uicheon and the  
Commentary of Vijñaptimātratā

최 중 남 (Choi, Jong-Nam)\*\*

## ◁ 목 차 ▷

- |                                   |        |
|-----------------------------------|--------|
| 1. 서론                             | 4. 결론  |
| 2. 대각국사 의천의 유식사상                  | <참고문헌> |
| 3. 「신편제종교장총록」에 있어서<br>유식장소에 대한 분류 |        |

## < 초 록 >

의천은 유식사상을 融會思想에 입각하여 화엄, 천태, 선, 계율 등의 교학과 함께 입승 전부터 玄化寺에 우상 법사에게, 입승 후에는 顯聖寺 해림 법사에게서 각각 유식학을 수학하였고, 그리고 법상종의 승려인 선연과 유식사상에 대해서 서로 논하였다. 의천은 「判定成唯識論單科序」에서 유식학을 익히기 위해서는 삼계유식 사상의 토대가 되는 유식사상을 설하고 있는 「화엄경」을 먼저 수학하고, 그리고 유식사상과 화엄사상의 性과 相은 하늘의 해와 달, 혹은 주역의 乾과 坤과 같이 兼學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시대별·사상별로서는 小乘, 始教, 終頓教, 圓融의 門의 순서, 즉 「구사론」, 유식사상, 「기신론」, 화엄사상 순으로 수학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의천은 「講圓覺經發辭」에서는 유식학의 중심 사상 중의 하나인 인도 대승 유식의 제8식설과 중국에서 진제에 의해 제창된 제9식설 중에서 인도 대승 유식사상의 제8식설을 설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6세기에 형성된 섭론종 진제의 제9식설을 수용하지 않고 인도 대승 유식사상과 7세기에 형성된 법상종의 현장·규기와 서명학파의 원측이 주장한 제8식설을 지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의천은 「偶吟一絕寄湛大師」에서 마명, 용수, 무착, 세친은 性宗, 空宗, 相宗으로서 종파는 각각 다르지만 율화사상에 입각해서 근본이 같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의천이 편찬한 「신편제종교장총록」에는 총 1,010부·4,857권의 장소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장소 중에서 유식 장소는 8.21%부·13.6%권으로서 83부·661권의 장소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 장소 중에는 중국의 지론종, 섭론종, 법상종, 서명학파 중에서 지론종계의 장소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신편제종교장총록」에는 섭론종 진제에 의해 제9식설을 제창하기 위해 찬술된 「九識章」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장소는 의천의 유식사상과는 일치하지 않다. 그러나 의천은 장소의 중요성과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학들이 경·론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목록에 수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要語: 의천, 장소, 유식학, 신편제종교장총록, 구식장

\* 본 논문은 <2014년 제3차년도 高麗 諸宗教藏 調査 학술보고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부 교수(acaryachoi@hanmail.net)

접수일: 2015년 5월 27일 최초심사일: 2015년 6월 20일 심사완료일: 2015년 6월 25일

<ABSTRACT>

Uicheon studied the ideology of Vijñaptimātrātā under the Buddhist monk Usang at Hyeonhwasa(玄化寺) before entering Song(宋) dynasty, the Buddhist monk Hyerim at Hyeonseongsa(顯聖寺) after entering Song dynasty with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Hwaem, Cheontae, Seon, and Religious Precepts etc, based on the idea of Harmony for the thought of Vijñaptimātrātā, and had a discussion on the thought of Vijñaptimātrātā with a buddhist monk of Beopsangjong(法相宗), Seonyeon. Uicheon recommended that, at first, you should learn *Buddhāvataṃsakanāmamahāvaiṇyūya Sūtra* which explained the thought of Yusim (only-mind), the basis of the thought of Samgyeyusik(三界唯識) to know the ideology of Vijñaptimātrātā in *Ganjeongseongyusikrondangwaseo*(刊定成唯識論單科序), Essence(性) and Form(相) in the thoughts of Vijñaptimātrātā and Hwaem should be studied together like the sun and the moon in the sky, or the heaven and the earth of Juyeok(周易). And also, he suggested that you should study in order of the times and the thoughts the doors of Hinayāna(小乘), 始教, 終頓教 and 圓融, that is, *Abhidharmakośa-śāstra*, the thought of Vijñaptimātrātā, *Gishinron*(起信論), and the thought of Hwaem. In *Gangwongakgyeongbalsa*(講圓覺經發辭), Uicheon said the theory of the eighth consciousness of Vijñaptimātrātā in India's Mahāyāna Buddhism, one of the main thoughts of the ideology of Vijñaptimātrātā, and the theory of the eighth consciousness in the thought of Vijñaptimātrātā in India's Mahāyāna Buddhism among the theory of the ninth consciousness that was advocated by Paramārtha in China. In such a point of view, it means that he didn't accept the theory of the ninth consciousness of Paramārtha in Seopronjong(攝論宗) which was formed in 6C, but supported the thought of Vijñaptimātrātā in India's Mahāyāna Buddhism, the theory of the eighth consciousness which Hyeonjang, Gyugi of Beopsangjong which was formed in 7C, Woncheuk(圓測) of Seomyeong school(西明學派) insisted. And Uicheon said that Aśvaghōṣa, Nāgārjuna, Asaṅga, Vasubandhu were different from their schools in the divisions of the Essential-nature school, the Śūnyatā school, the Dharma character school, but in the thought of harmony, their bases were same. Also, in the *Shinpyeonjeonggyojojangchongrok* written by Uicheon, it includes the commentary contents of a total, 1,010 chapters, 4,857 books. Among this commentary, the commentary of Vijñaptimātrātā has a percentage of 8.21% to the chapters, 13.6% to the books, a total 83 chapters and 661 books. In this commentary, there are no records of commentaries on China's Jironjong(地論宗), Seopronjong, Beopsangjong, and the course of Jironjong in the Seomyeong School. In the *Shinpyeonjeonggyojojangchongrok*, there includes the *Gusikjang*(九識章) which was written to advocate the theory of the ninth consciousness by Paramārtha of Seopronjong. This commentary is not coincided with the thought of Vijñaptimātrātā by Uicheon. But I assume that Uicheon would include it to the contents to help students for a deep understanding on Sūtra, Abhidharma as mentioned in *Daeseonwangjeonggyojojangjoonso*(代宣王諸宗教藏影印疏) with the importance of the commentary.

Key words: Uicheon, Commentary, Vijñaptimātrātā, *Shinpyeonjeonggyojojang-chongrok*, Gusikjang

## 1. 서론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은 47년의 생애동안 수행자로서 사상적으로는 화엄·천태·종관·유식·선·율·인명·정토 등을,<sup>1)</sup> 언어로서는 산스크리트어를,<sup>2)</sup> 그리고 외전으로서는 공자와 노자의 저서들뿐만 아니라 제자백가의 集錄들과 史記들도 수학하였다.<sup>3)</sup>

의천의 유서, 편저 및 역경문헌들로서는 다양하다. 韓國佛教全書에 수록되어 있는 의천의 유서로서는 『新圓宗文類書』 등이 大覺國師文集(殘簡23권)에 권1부터 권23까지, 『大宋哲宗皇帝詔書』 등이 大覺國師外集(殘簡13권)에 권1부터 권13까지 각각 수록되어 있다.<sup>4)</sup> 편저로서는 『圓宗文類』(총 23권 중, 권14·22 현존),<sup>5)</sup> 『釋苑詞林』(총 250권 중, 권191부터 권195까지 현존),<sup>6)</sup> 『新編諸宗教藏總錄』(3권),<sup>7)</sup> 『成唯識論單科』, 『八師經直解』, 『消災經直解』, 『三家義疏』<sup>8)</sup> 등이 있다.<sup>9)</sup> 이들 편저 중에서 『成唯識論單科』, 『八師經直解』, 『消災經直解』, 『三家義疏』는

- 1) 趙明基, 『高麗大覺國師와 天台思想』(서울: 경서원, 1962), 12-15 참조.
- 2) 이지관, 『仁同僊鳳寺大覺國師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3)(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6), 183: … 豈如僧統一來上國 所有天台 賢首 南山 慈恩 曹溪 西天梵學 一時傳了 … ; 趙明基, 『高麗大覺國師와 天台思想』(서울: 경서원, 1962), 180 참조.
- 3) 이지관, 『開城靈通寺大覺國師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3)(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6), 118-119: … 又餘力外學 見聞淵博 自仲尼老聃之書 子史集錄百家之說 … ; 趙明基, 『高麗大覺國師와 天台思想』(서울: 경서원, 1962), 173 참조.
- 4) 동국대학교 한국불교전서편찬위원회, 『韓國佛教全書』 第四冊(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82), 528-597.
- 5) 동국대학교 한국불교전서편찬위원회, 『韓國佛教全書』 第四冊(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82), 597-647.
- 6) 동국대학교 한국불교전서편찬위원회, 『韓國佛教全書』 第四冊(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82), 648-678.
- 7) 동국대학교 한국불교전서편찬위원회, 『韓國佛教全書』 第四冊(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82), 679-697.
- 8) 『三家義疏』에 대해서는 趙明基(『高麗大覺國師와 天台思想』(서울: 경서원, 1962), 29)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박용진(『義天 그의 생애와 사상』(서울: 혜안, 2011), 30)은 大覺國師外集 卷2(『韓國佛教全書』 第四冊, 568下)에 수록되어 있는 “… 今法師敍三家之義疏 與夫向者 示諸來學 煥然冥契 …”의 내용을 들어 『三家義疏』를 추가하고 있다.
- 9) 趙明基, 『高麗大覺國師와 天台思想』(서울: 경서원, 1962), 29 참조.

현존하지 않다. 그리고 의천이 중국역경문헌들을 참조하여 새롭게 역경(=方言)한 역경문헌들로서는 『化嚴經』(3本 180권), 『南本涅槃經』(36권), 『妙玄』(10권)이 있다.<sup>10)</sup> 그러나 아쉽게도 이들 역경문헌들 또한 현존하지 않다.

이상과 같은 의천의 유서, 편저, 그리고 역경문헌들을 이용하여 국내외에서 그동안 다양한 사상적<sup>11)</sup> 및 분류체계<sup>12)</sup>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 중에서는 대부분 의천의 역사적, 서지학적 및 화엄사상, 그리고 천태사상을 중심으로 연구·발표가 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의천이 남긴 대각국사문집과 대각국사외집 및 비문들인 『開城興王寺大覺和尚墓誌』(1101년 11월 4일), 『開城靈通寺大覺國師碑文』(1125년), 『仁同僊鳳寺大覺國師碑文』(1132년 8월) 중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식관련 내용, 그리고 『신편제종교장총록』에 수록되어 있는 唯識章疏<sup>13)</sup>만을 중심으로 분류·분석하여 의천의 유식사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10) 동국대학교 한국불교전서편찬위원회, 『韓國佛教全書』 第四冊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82), 566中: … 所有講演諸部三百餘卷而化嚴三本 共一百八十卷 雖有古人相□之說吾並不用 但依本疏翻譯方言 其南本涅槃三十六卷等亦爾 妙玄十卷等諸部 古無傳授者 不揆膚受輒 譯方言 亦有十餘部 …

11) 의천의 사상적 연구로서 대표적인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趙明基, 『高麗大覺國師와 天台思想』 (서울: 경서원, 1962). ; 김영태, 『한국불교사』 (서울: 경서원, 1986). ; 이만, 『한국유식사상』 (서울: 장경각, 2000). ; 이병욱, 『고려시대의 불교사상』 (서울: 혜안, 2002). ; 이병욱 편저, 『의천, 한국의 사상가 10人』 (서울: 예문서원, 2002). ; 박용진, 『義天 그의 생애와 사상』 (서울: 혜안, 2011) 등.

12) 大屋徳城, 『高麗續藏經造攷』 (京都: 便利堂, 1936). ; 김성수,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分類體系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2). ; 최애리, “新編諸宗教藏總錄의 편성체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6) 등.

13) 본 논문에서는 『신편제종교장총록』을 중심으로 분류·고찰하므로, 의천과 뜻을 같이한 의천의 외삼촌인 慧徳(1038-1095)王師에 의해 전북 金山寺 廣敎院에서 판각된 『성유식론술기』는 제외하였다. 최종남, “광교원본 『성유식론술기』 권6의 판본 대조 연구,” 『고려제종교장 학술발표회 -의천의 교장, 천년의 지혜를 미래로-』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13), 145. ; 남권희, “새로 發見된 高麗 續藏經의 覆刻本 3種에 關한 考察,” 『圖書館學論集』 제16호(1989), 60 참조.

## 2. 대각국사 의천의 유식사상

의천은 11세기인 고려시대 중기에 활동한 스님이다. 중국불교사에 있어서 이 시대는 초기번역시대(불교전래부터 동진도안까지), 준비육성시대(구마라집부터 남북조말까지), 제종성립시대(수당시대)를 거쳐 동화융합시대인 송대 이후이며,<sup>14)</sup> 교학적으로는 고역·구역·신역의 역경시대<sup>15)</sup>를 거쳐 역경된 경·율·론 삼장을 토대로 하여 주석서 및 중국 논사들에 의해 제종파의 다양한 찬술서들이 영인된 시기이다. 그리고 이 시대는 종이와 인쇄술의 발달로 인하여 당시대까지 역경된 불전들과 주석서 및 제종파 찬술서들의 산일을 우려하고, 전법을 위하여 대장경의 판각·인경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이다.

의천은 화엄종·유가종·조계종의 3대 종파가 활동하던 시기<sup>16)</sup>인 고려 제11대 왕인 文宗(1019-1083)과 仁睿 王后(?-1092)의 사이에서 문종 9년(1055, 乙未年) 9월 28일 넷째 왕자로 태어났다. 성은 왕(王)씨이며, 이름은 후(煦)이고, 자는 의천이며, 시호는 대각국사이다.<sup>17)</sup>

의천은 11세인 문종 19년(1065, 乙巳年) 5월 14일 永通寺 景德國師 爛圓(999-1066)에게서 사미계를, 그리고 같은 해 화엄종 佛日寺 계단에서 구족계를 각각 수지하였다. 의천은 출가 이후 「화엄경」, 頓教(=「화엄경」)·漸教(=「법화경」), 대소승의 삼장 및 삼장의 주석서들을 수학하고 강의를 하였다.<sup>18)</sup> 의천은 31세인

14) 鎌田茂雄, 「初傳期の佛敎」, 『中國佛敎史』 第一卷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2), 70-71 참조.

15) 최종남 편, 「역경학개론 수업 자료집」 (김포: 중앙승가대학교, 2015), 34 참조.

16) 이영자, 「법화·천태사상연구」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2), 405 참조.

17) 이지관, 「開城靈通寺大覺國師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3) (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6), 117-18: … 師諱釋煦 俗姓王氏 字義天 後以名犯哲宗諱 以字行 我太祖大王四世孫而文宗王第四子也 母仁睿太后李氏 夜夢若有龍入懷 而有身焉 至乙未秋九月二十八日 生於宮中 … ; 이지관, 「仁同僊鳳寺大覺國師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3) (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6), 181: … 師文祖第四子 母仁睿太后諱釋煦 字義天 二聖與師 夙植夙緣 妙契弑時 … .

18) 이지관, 「開城靈通寺大覺國師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3) (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6), 118: … 自賢首教觀 及頓漸大小乘經律論章疏 無不探索 … ; 이지관, 「仁同僊鳳寺大覺國師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3) (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

宣宗 2년(1085) 4월 8일에 불교의 대의를 問學하고자 송나라에 求法旅行을 떠났다. 의천은 송나라에서 선종 3년(1086) 6월까지 14개월간 有誠, 淨源에게서 화엄사상을,<sup>19)</sup> 慈辯대사 從諫에게서 천태사상을, 懷璉, 宗本, 了元 등에게서 선사상을, 擇基, 元照에게서 율장을, 慧林, 善淵에게서 유식사상을, 그리고 天吉祥, 紹德에게서 산스크리트어 등을 각각 수학하고 담론하였다.<sup>20)</sup> 의천은 송에서의 짧은 구법여행이었지만 이와 같은 고승들과 불전들에 의해 불교의 시대별·학과별·종파별, 그리고 불전언어 등을 체계적 있게 이해를 하고 귀국하였다.

「仁同僊鳳寺大覺國師碑文」<sup>21)</sup>에 의하면, 구법일행과 헤어질 무렵 主客員外郎(官職)인 楊傑은 의천이 입송할 때 동행한 壽介, 樂眞, 慧宣, 道隣, 良辯 및 여러 스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의천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자고로 성현이 바다를 건너 법을 구한 자가 많았지만, 어찌 僧統께서 한 차례 오신 것과 같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天台, 賢首, 南山, 慈恩, 曹溪, 西天의 梵學을 일시에 전해 터득하시니 참으로 법을 넓히는 대보살행자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開城靈通寺大覺國師碑文」<sup>22)</sup>에 의하면, 고승들은 의천에게 전별의 詩를 전한다. 전별시는 서두 부분만 있고 뒷부분이 전체 결락되어 전체적인 내용

구원, 1996), 181: … 受賢首教觀 景德卒 與其徒 講學不止 ….

19) 그 외에도 「능엄경」, 「원각경」, 「대승기신론」 등을 수학하였다. 이영자, 「법화·천태사상연구」(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2), 408 참조.

20) 이지관, 「開城靈通寺大覺國師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3)(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6) 참조. ; 이지관, 「仁同僊鳳寺大覺國師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3)(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6) 참조. ; 이영자, 「법화·천태사상연구」(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2), 408-409 참조. ; 의천이 입송시 교류한 중국의 고승들을 「開城興王寺大覺和尚墓誌」(‘… 等五十餘人也 …’)와 이영자는 50명으로, 박용진은 30명 등으로 각각 언급하고 있다. 趙明基, 「高麗大覺國師와 天台思想」(서울: 경서원, 1962), 182. ; 이영자, 「법화·천태사상연구」(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2), 409 참조. ; 박용진, 「義天 그의 생애와 사상」(서울: 해안, 2011), 68 참조.

21) 이지관, 「仁同僊鳳寺大覺國師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3)(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6), 183: … 自古聖賢 越海求法者 多矣 豈如僧統一來上國 所有天台 賢首 南山 慈恩 曹溪 西天梵學 一時傳了 眞弘法大菩薩之行者 ….

22) 이지관, 「開城靈通寺大覺國師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3)(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6), 121: … 故其所贈詩 有孰若祐世師[五十九字缺] ….

은 알 수 없지만 의천에 대한 찬탄과 수승함을 다음과 같이 짧게 적고 있다.

“... 그러므로 그들이 [僧統에게] 준 詩에 ‘祐世<sup>23)</sup>師(=僧統)만한 [스님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59字缺落]].”

의천은 중국에서의 問學을 마치고 구법여행 마지막 즈음인 선종 3년(1086) 4월에 천태산에 있는 智者대사(538-597) 부도에 참배하고 발원문을 지어 탑전에서 다음과 같은 서원을 한 후 5월 29일<sup>24)</sup>에 귀국하였다.

“일찍이 듣건대 대사께서는 五時八教로써 동쪽으로 유입된 부처의 一代 성스러운 말씀을 判釋해 다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諦觀이라는 자(스님)가 있어서 [천태]교관을 전했는데 지금은 承習이 단절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제가 이제 분심을 발하여 몸을 잊고, 스승을 찾아 道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미 錢塘의 慈辯[대사] 講下에서 [천태]교관을 이어받았습니다. 다른 날(= 훗날) 귀국하면 생명이 다하도록 [법을] 전하여 선양하겠습니다.”<sup>25)</sup>

이와 같이 의천은 입승하여 중국의 고승들과의 활발한 교류 및 문헌들에 의해 불교의 제사상을 問學하는 구법여행을 하였다. 고승들의 찬탄을 받고, 그리고 智者塔院에서의 발원을 한 후 귀국하여 47세로 肅宗 6년(1101) 10월 5일에 입적할 때까지 학생으로서 전법을 위해 찬술활동, 불전의 역경, 그리고 삼장 및 제종의 사상 등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또한 의천은 경·율·론 삼장들이 석경과 대장경에 수록되어 전래되고 있지만 삼장에 대한 주석서들은 어느 대장경에도 수록되어

23) 祐世는 문종 23년(1069)에 문종이 하사한 법호이다. 이 때 함께 문종은 의천에게 승통직을 내렸다. 이지관, “仁同僊鳳寺大覺國師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3) (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6), 181: ... 文祖二十三年 賜號祐世 授職爲僧統 ...

24) 이지관, “開城靈通寺大覺國師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3) (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6), 122: ... 夏五月 二十日 隨本國朝賀回使 放洋二十九日(四十八字缺) ... 의천의 귀국일자에 대해서 최병현은 6월 18일, 조명기는 6월 등으로 각각 언급하고 있다. 박용진, 『義天 그의 생애와 사상』 (서울: 혜안, 2011), 62 및 각주 43) 참조.

25) 이지관, “仁同僊鳳寺大覺國師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3) (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6), 183: ... 日嘗聞大師 以五時八教 判釋東流一代聖言 無不盡 本國古有諦觀者 傳得教觀 今承習久絕 予發憤忘身 尋師問道 今已錢塘慈辯講下 承稟教觀 他日還鄉 盡命傳揚 ...

있지 않아 산일의 우려와 교학을 널리 펴고자 하는 뜻에서 중국(唐·宋·遼), 한국(신라·고려), 일본에서 찬술된 주석서의 章疏들을 수집·정리하여 1090년 8월에 총 1,010부·4,857권으로서 제1권 경소부, 제2권 율소부, 제3권 논소부로 배열·구성하여 『新編諸宗教藏總錄』(3권)을 편찬하였다. 『新編諸宗教藏總錄』에 수록된 장소들은 개성 興王寺에 설치된 教藏都監에서 1092년부터 1102년까지 보관되었다.<sup>26)</sup>

의천의 생애 중에 남긴 유서들은 大覺國師文集과 大覺國師外集에 각각 분리·수록되어 있다. 大覺國師文集에는 序·辭·表·狀·論·疏文·祭文·詩 등이, 그리고 大覺國師外集에는 宋과 遼나라의 僧俗들과 나눈 書翰 및 記·詩·碑名 등이 각각 분리·수록되어 있다.<sup>27)</sup>

편저로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존하는 문헌들로서는 4개로 『圓宗文類』, 『釋苑詞林』, 『新編諸宗教藏總錄』가 있다. 그리고 산일된 문헌들로서는 4개로 『成唯識論單科』, 『八師經直解』, 『消災經直解』, 『三家義疏』가 있다. 역경문헌들로서는 『化嚴經』, 『南本涅槃經』, 『妙玄』이 있다. 그러나 이들 문헌들 또한 아쉽게도 현존하지 않다.

위의 유서 및 편저들 중에는 화엄종(=법성종)과 천태종 고승들의 법명, 사상, 사찰들에 대한 언급은 다수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법상종 고승들 및 사상들에 대해서는 몇 군데에서만 언급되고 있다.

의천이 남긴 유일한 유식문헌은 『成唯識論單科』(권3)이다. 『성유식론단과』는 『성유식론』 권10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한 주제어로 정리·분류하여 찬술한 科文이다. 아쉽게도 『성유식론단과』의 전체적인 원문은 현존하지 않지만 『刊定成唯識論單科序』<sup>28)</sup>로서 서문만 현존하고 있다. 서문에서 의천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26) 최중남, “광교원본 『성유식론술기』 권6의 판본 대조 연구,” 『고려 제종교장 학술발표회 -의천의 교장, 천년의 지혜를 미래로-』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13), 146 참조.

27) 박용진, 『義天 그의 생애와 사상』 (서울: 혜안, 2011), 96 참조.

28) 『韓國佛教全書』 第四冊, 529上22-中1: … 但於唯識未盡其功 而恐溺彼繁辭 …

“... 『유식론』<sup>29)</sup>에 대해서는 그 공부를 다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 번거로운 언사에 빠져 그 요긴한 이치를 모를까 걱정이다.”

의천은 본 서문에서 자신의 유식사상 이해에 대해서 겸손하게 언급하고 있다. 『성유식론단과』의 모체 논서인 『성유식론』은 유식학파의 미륵(Maitreya), 무착(Asaṅga)이 설한 유식사상들을 5位100法을 중심으로 하여 비판·논증·해석으로 전개하면서 초기·부파·타 학파불교사상, 그리고 인도사상들을 세친(Vasubandhu)이 인식론·존재론·수행론으로 분류·체계화하고 보완<sup>30)</sup>하여 30개의 계승으로 『唯識三十論頌』을 저술한 것이다. 현장(602-664)은 인도 유학 중에 인도에 『유식삼십론송』 주석서들을 수집하여 귀국한 후, 이들 주석서 중에서 護法(Dharmapāla)의 주석서가 가장 뛰어나 호법의 주석서를 저본으로 하고 다른 논사들이 저술한 주석서들을 參攷翻譯하여 『성유식론』이라는 논명으로 역경·간행한 논서이다.<sup>31)</sup>

따라서 의천은 서문에서 겸손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성유식론단과』를 찬술함에 있어서 인도의 사상 및 시대별 불교사상 등을 체계적으로 깊은 이해를 하고 과문을 찬술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천은 서문<sup>32)</sup>에서 또한 유식학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있다.

“... 이에 本記를 연구하고 깊이 연구하고 旧科를 참작해 간추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3권으로 만들었다. 만약 同志로서 과[문]을 가지고 논[문]을 음미하려는 자는 먼저 正文을 익힌 뒤에 疏鈔로 단련한다면 유식의 뜻을 거의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29) 보정(『의천불교사상의 회통적 성격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7), 53)은 ‘유식론’을 ‘唯識三十論頌’이라고 함.

30) 최종남, “광고원본 『성유식론술기』 권6의 판본 대조 연구,” 『고려 제종교장 학술발표회-의천의 교장, 천년의 지혜를 미래로-』(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13), 147 참조.

31) 玉華寺에서 659년 10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번역하였다. 桑上正進·袴谷憲昭, 『玄奘』(東京: 大藏出版, 1981), 257 참조.

32) 『韓國佛教全書』第四冊, 529中2-5: 於是尋研本記 斟酌舊科 刊而定之 勤爲三卷 儻同志者 持科玩論 先熟正文 後治疏鈔 則唯識之旨 庶幾乎易見矣.

의천은 유식사상의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논서를 강독한 후에 소초를 읽을 것을 권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천은 그가 남긴 문헌들 중에는 유식사상에 대한 언급이 적지만 유식사상 및 유식문헌들의 사상적 전개 과정 및 시대별·지역별(인도·중국) 문헌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1 의천의 유식학 스승들

의천은 화엄종 사찰인 영통사에서 출가와 사미계를, 같은 종파 사찰인 불일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하였다. 불교의 사상 중에서 맨 먼저 접한 사상은 경덕국사 난원에게서 화엄교학이다. 이어서 고려와 중국에서 천태·법상·선·계율·법학·제종파 등의 스승에게서 수학하였다. 그리고 고국에 귀국하여 경·율·론삼장에 대한 1,010부·4,857권의 주석서들을 수집하여 『新編諸宗教藏總錄』을 편찬하였고, 그가 남긴 문헌들도 시대별(초기: 『八師經直解』, 『南本涅槃經』)·사상별(화엄: 『三家義疏』, 『化嚴經』, 천태: 『妙玄』, 법상: 『成唯識論單科』 등)들로 다양하게 편저의 찬술과 역경을 하였다. 또한 의천이 입적한 사찰은 천태종 洪圓寺이다.

이와 같이 의천은 생애동안 시대별·사상별, 그리고 제종파를 초월하여 수행자로서 수학과 후학들을 지도하였다.

이에 대해서 선행 학자들 중에서 조명기는 ‘원효의 사상을 계승하여 綜合—乘을 이념으로 하고, 定慧雙修를 그 방편’<sup>33)</sup>으로, 그리고 이영자는 ‘의천의 통합사상은 원효의 화쟁사상에 근거’<sup>34)</sup>로 전개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천은 원효를 海東菩薩, 혹은 聖師 등으로 존칭하면서 원효의 사상을 이어받고자 시대별·지역별·학과별·종파별 등을 融會·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의천은 융화사상의 실천으로 입승하기 전부터 스승을 찾아 유식사상을 수학하

33) 趙明基, 『高麗大覺國師와 天台思想』(서울: 경서원, 1962), 48 참조. ; 이병욱, 『천태사상 연구』(서울: 경서원, 2000), 564 참조.

34) 이영자, “의천의 천태회통사상,” 『한국천태사상의 전개』(서울: 민족사, 1998), 138-157 참조. ; 이병욱, 『천태사상 연구』(서울: 경서원, 2000), 564 참조.

였다. 의천은 법상교학이 크게 융성하고 초조대장경이 조성된 玄化寺에서 海麟의 문도인 祐翔 법사에게 유식사상을 수학하였다.<sup>35)</sup> 우상 법사는 의천에게 가르침을 전한 후 宣宗 2년(1085)경에 重大師가 되었으며, 그 후 우상 법사는 三重大師로 승진한 후 숙종의 즉위를 전후하여 입적하였다.<sup>36)</sup>

그리고 의천은 입송 후 東京 顯聖寺를 찾아가 慧琳 법사 문하에서 그동안 의문시 되었던 유식의 제사상들을 물어 의심을 해결하였다.<sup>37)</sup> 그 후 의천은 중국에서 법상종의 승려인 善淵과도 교류하였다.<sup>38)</sup>

이와 같이 의천은 고려와 중국에서 3명의 스승들에게 유식학을 수학하고 교류하였다. 그러나 그가 남긴 기록과 사상에 의하면 중국에서 찬술된 주석서들에 의해서도 많은 수학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예로서 의천은 『간정성유식론단과서』에서 법상종 慈恩大師 窺基(632-682)가 찬술한 疏(=『成唯識論述記』<sup>39)</sup>?)와 西明大師 圓測(613-696)이 찬술한 疏(=『成唯識論疏』)<sup>40)</sup>에서 직접 인용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그리고 의천은 『講圓覺經發辭』<sup>41)</sup>에서 규기와 원측이 주장한 第8識說을 언급하고 있다.

위의 내용들에 의하면 의천은 인도에서 저술된 유식문헌과 菩提流支(Bodhiruci, ?-527)에 의해 형성된 地論宗, 眞諦(Paramārtha, 499-569)에 의해 형성된 攝論宗의 문헌 및 사상을 주로 참조하지 않고 法相宗 논사들과 서명학과 원측이 찬술한 주석서들을 참조하고 이 논사들의 사상을 지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35) 『韓國佛教全書』 第四冊, 529上14-15: … 觀講主 後聽唯識論於玄化寺祐翔大師 …

36) 보경, “의천불교사상의 회통적 성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7), 72 참조.

37) 『韓國佛教全書』 第四冊, 529上16: … 東京顯聖寺琳法師門 諮決斯論 …

38) 大屋徳城, 『高麗續藏經造攷』(京都: 便利堂, 1936), 15.; 이만, 『한국유식사상』(서울: 장경각, 2000), 373.; 박용진, 『義天 그의 생애와 사상』(서울: 혜안, 2011), 68 참조.

39) 의천은 “자은소”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에 의하면 『成唯識論述記』를 의미한다. 大正藏43, 229下29-230上3: … 又今此論爰引六經. 所謂華嚴. 深密. 如來出現功德莊嚴. 阿毘達磨. 楞迦. 厚嚴. 十一部論. 瑜伽. 顯揚. 莊嚴. 集量. 攝論. 十地. 分別瑜伽. 觀所緣緣. 二十唯識. 辨中邊. 集論等爲證.

40) 『韓國佛教全書』 第四冊, 529上10-13: … 故慈恩疏 … 西明疏中 釋歸命偈 …

41) 『韓國佛教全書』 第四冊, 531下20: … (二空)八識(斷惑緣生) …

## 2.2 의천의 문헌에 있어서 유식사상

의천의 대각국사문집과 비문들에는 많지는 않지만 이들의 기록에서 의천의 유식사상과 유식관련 행장을 찾을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들의 기록들을 권차순과 시대별로 분류·분석하여 의천의 유식사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 2.2.1 「간정성유식론단과서」에 있어서 의천의 견해

의천의 대각국사문집 권1에는 「간정성유식론단과서」<sup>42)</sup>가 수록되어 있다. 동 기록은 「간정성유식론단과」의 서문이며, 「간정성유식론단과」는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문헌은 의천이 화엄사상 및 돈점, 대소승의 경율론, 제종파의 장소들을 수학한 후에 유식사상에 대한 參學의 뜻이 간절해지고, 그리고 후학들에게 유식사상의 번거로운 이론을 피하고 요의를 명확하게 전해주고자 1096년경에 합친 해인사에 머무르면서 편찬한 문헌이다.<sup>43)</sup> 「간정성유식론단과」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존하지 않고, 서문만 현존하고 있다. 서문 또한 완전하지 않고 권1의 5-6장이 결락되어 중간부분은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sup>44)</sup>

본 서문에서는 의천이 중국 불교와 유식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시대별·지역별·학파별·종파별 등과 의천의 유식학 수학의 행장 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한국불교전서」 제4책에 수록되어 있는 「간정성유식론단과서」<sup>45)</sup>의 내용은 다

42) 『韓國佛教全書』 第四冊, 529上7-下4.

43) 이만, 『한국유식사상』 (서울: 장경각, 2000), 374 참조; 박용진, 『義天 그의 생애와 사상』 (서울: 혜안, 2011), 341 참조.

44) 박용진, 『義天 그의 생애와 사상』 (서울: 혜안, 2011), 97 참조.

45) 『韓國佛教全書』 第四冊, 529上7-下4: 刊定成唯識論單科序 皇覺彝訓 東漸久矣 源乎周派乎漢 汪洋于魏晉 瀚漫于隋唐 以其或定慧 之不同 遂致經律論之有異也 在昔姚 秦羅什 入關大乘論學 始翻于世 則中百門等是也 江左六朝 宗釋氏者 皆以三論 爲不□之(卷一第五-六張缺落) 觀講主 後聽唯識論於玄化寺祐翔大師 又就餘杭慧因寺源公講下 稟受 大徑 東京顯聖寺琳法師門 諮決斯論 厥後 以傳燈爲己任 因住興王寺 講演雜華 周於十編 而退隱干伽耶出海印寺 愛林泉之樂 萌著述之心 泛覽百家 將利其器 以謂起信唯識二論 是性相兩宗之樞要 學人之所宜盡心 者矣 然起信論 亦嘗粗習 但於唯識 未盡其功 而恐溺

음과 같다.

“부처님의 교훈이 周나라 때부터 시작되어 漢, 魏晉을 거쳐 수·당때에 보급되었는데 게·정·혜가 갈지 않아서 마침내 경·율·론이 다르게까지 되었던 것이다. 옛날 姚秦때에 구마라집이 關中에 들어와서 대승론의 학문을 처음으로 세상에 펼쳤으니, 이른바 「중[론]」·「백[론]」·「[십이]문[론]」 등이 그것이다. 육조[시대]에는 불교를 높이는 자(宗釋氏者)는 모두 삼론으로써 … (卷1 第5-6張 缺落) … 講主가 玄化寺의 祐翔 대사에게서 유식론을 듣고, 또 餘杭 慧因寺의 淨源법사의 講下에 나아가 大經을 전해 받았으며, 東京 顯聖寺의 慧琳 법사 문하에서 유식론을 물어 의문을 해결하였다. 그 후로 이의 傳燈을 자기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興王寺에 머무르면서 「화[엄경론]」을 강연하기를 시방에 두루 펼쳤으며, 가야산 해인사에 은퇴하여서 산수의 즐거움을 애호하였다. 그러다가 저술할 마음이 일어나 百家를 두루 泛覽하고 장차 그 法器가 될 만한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고 설하기를, 「기신[론]」과 「유식[론]」의 두 가지 논장은 性宗과 相宗의 樞要이어서 학인들은 마땅히 마음을 다 써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신론」은 일찍이 약간 익힌 바 있지만 「유식[론]」에 대해서는 그 공부를 다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 번거로운 연사에 빠져 그 요긴한 이치를 모를까 걱정이다. 이에 本記를 연구하고 깊이 연구하고 旧科를 참작해 간추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3권으로 만들었다. 만약 同志로서 과[문]을 가지고 논[문]을 음미하려는 자는 먼저 正文을 익힌 뒤에 疏鈔로 단련한다면 유식의 뜻을 거의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후자는 ‘賢首 [大師 法藏]은 5교 가운데서 유식유가를 대승의 始教로 판석하였고, 실로 究竟 …(缺落)…의 …(缺落)…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사는 화엄을 담당한다고 자부하면서 어찌 겉으로 …(缺落)… 五教를 窮究한다. 그러므로 겸학을 해야 한다. 대개 화엄 …(缺落)… 一代 支派의 끝은 이로부터(卷1 第7張)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은소」에서 6經을 예로 들고 화엄을 그 제일 앞에 둔 것이다. 또한 ‘經은 근본이 되고, 법상에 의해 그것을 선양하며, 논은 支末의 종지이니 부처의 말씀을 받아 이치를 이룬다.’라고 하였다. 「서명소」

彼繁辭 迷其要義於是尋研本記 斟酌舊科 刊而定之 勤爲三卷 儻同志者 持科玩論 先熟正文 後治疏鈔 則唯識之旨 庶幾乎 易見矣 或曰 賢首五教中 判唯識瑜伽 爲大乘始教 而云固非究竟 □□之□ 法師克荷於華嚴 何必橫功 □□□□□窮五教 故兼學也 蓋華□□□□□一代枝末 從此而(卷一第七張)出故也 故慈恩疏 引例六經 而以華嚴 冠之最初 又云經爲根本 隨法相以宣揚 論是末宗 稟佛言而成理 西明疏中 釋歸命僞滿分之言 曰滿則如來 分是金剛藏 解脫月者 可謂深見輕論之本末也 況清涼有言 性之與相 若天之日月 易之乾坤 學兼兩轍 方曰通人 是知不學俱舍 不知小乘之說 不學唯識 寧見始教之宗 不學起信 豈明終頓之旨 不學法嚴 難入圓融之門 良以淺不至深 深必該減 理數之然也 故經僞云 無力飲池河 詎能吞大海 不習二乘法 何能學大乘 斯言可信也 二乘尙習 況大乘乎 近世學佛者 自謂頓悟 蔑視權小 及談性相 往往取笑於人者 皆由不能兼學之過也 或曰唯唯而今而後請從事於斯矣 高麗國 傳華嚴大教 廣智開宗 弘(卷一第九張~一四張缺落).

중에서 『釋歸命偈滿分』이라는 말을 해석해 ‘차면(滿) 여래이고, 나누면(分) 바로 금강장 해탈월이라고 한 것은 경론의 본말을 깊이 보았다고 이를 만하다.’라고 했다. 하물며 淸涼[國師 澄觀]은 ‘性과 相은 하늘의 해와 달과 같고, [주]역의 건과 곤이 같으므로, [그] 두 가지를 겸하여 공부하여야 비로소 통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구사[론]』을 배우지 않으면 소승의 설을 알지 못하고, 유식을 배우지 않고서는 시교의 종지를 볼 수 없으며, 『기신[론]』을 배우지 않으면 終頓의 뜻을 밝힐 수 없고, [그리고] 花嚴을 배우지 않으면 圓融의 [법]문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다. 진실로 얕은 지식으로는 깊은 지식에 이르지 못하나, 깊은 지식은 반드시 얕은 지식을 갖추니 이치가 본래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經의 계[송]에 이르기를 ‘못 몰도 마실 힘이 없이 어떻게 큰 바다를 삼킬 수 있으며, 二乘을 익히지 아니하고 어떻게 대승을 배울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 말은 믿을 만하다. 二乘을 익혀야 하는데 하물며 대승이겠는가!

근세에 불법을 배우는 자들이 스스로 돈오했다고 하여 權[敎]와 소[승교]를 멸시하고는 性·相을 담론하므로 자주 남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모두 兼學을 하지 못한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혹자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말씀에 의해 따라 겸학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고려국 화엄대교를 전하는 광지개종 흥 … (卷1 第9張-14張 缺落).<sup>46)</sup>

의천은 『간정성유식론단과서』에서 유식학의 교학 형성, 유식학의 체계화, 유식학의 성립 전후의 교학, 제종과의 교학, 시대별·사상별 교학의 겸학 등을 제안하고, 그리고 의천의 유식학 수학 행장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천의 견해는 후학들의 교학연찬과 수행, 그리고 고려시대 불교가 융회사상에 입각해서 발전과 증흥하기를 기원하면서 기록하였을 것으로 본다.

서문의 서두에 언급하고 있는 시간과 맨 끝에 인용된 문헌(淸涼有言)에서의 시간은 기원전부터 서기 9세기까지이다. 이 시간적 의미는 불교가 중국에 공식적으로 전래되기 이전인 주나라부터<sup>47)</sup> 청량국사 징관의 시대인 9세기까지이다. 주

46) 『간정성유식론단과서』에 대한 학술적인 번역은 다음과 같다. 이만, 『한국유식사상』(서울: 장경각, 2000), 374-376.; 보경, “의천불교사상의 회통적 성격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7), 73-74.; 박용진, 『대각국사문집』(서울: 지식은 만드는 지식, 2010), 33-36.

47) 주나라는 기원1046년부터 256년까지이다. 그러나 본 서문에서의 주나라는 동주시대인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256년까지를 의미한다고 본다.

나라라는 시간은 불교가 인도에서 전개되고 있었던 시간이기도 하지만, 後漢 明帝 永平 10년(67)에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기 이전에도 불교사상, 혹은 불전이 전래되었음을 의미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9세기는 당시대로서 중국불교사에 있어서 경·율·론 삼장에 대한 역경이 거의 완료되고, 불교학과 불교문화가 왕성하던 황금시대이다. 따라서 의천은 이 시대 기간 중에 역경 및 찬술된 주석서들을 주로 참조하여 본 서문을 기술하였을 것으로 본다.

의천은 유식학을 대승의 始教로 판석하였다. 그리고 유식학을 수학하기 위해서는 규기의 『성유식론술기』 권1에서 언급하고 있는 6경 11론 중의 첫 번째인 『화엄경』을 권하였다. 의천이 유식학을 수학하기 위해서 권하는 『화엄경』은 유식사상을 형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그 예로서 『화엄경』 『昇夜摩天宮品』 唯心偈<sup>48)</sup>와 『十地經』 三界唯心<sup>49)</sup>의 唯心思想은 『唯識二十論』에 계승되어 ‘三界唯識’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sup>50)</sup>

의천은 경·론·주석서와 관계에 있어서는 본말의 순서에 의해 깊이 통찰하고, 그리고 性(=화엄사상)과 相(=유식사상)에 있어서는 하늘의 해와 달, 혹은 주역의 건과 곤과 같이 兼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대별에 있어서도 순차적으로 소승의 논서인 『구사론』을 먼저 수학하고 대승 교학인 유식학을, 그리고 시대별과 사상적인 교판으로서 小乘의 說(=『구사론』), 始教(=유식사상), 終頓教(=『기신론』), 圓融의 門(=화엄사상)의 순서로 수학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48) 『화엄경』 『昇夜摩天宮品』, 大正藏10, 102上29-中1: 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만약 어떤 사람이 삼세의 일체 부처님을 알려고 한다면, 응당 법계의 성품을 관하여야 한다. 일체가 오로지 마음에 의해 이루어진다.”)

49) Ed. by R. Kondo, 『Daśabhūmīśvaro nāma Mahāyānasūtram』, (Tokyo: Nakayama Shobo, 1936), 98: tasyaivaṃ bhavati/ cittamātram idaṃ yad idaṃ traidhātukaṃ/ (“그 (=보살)는 이와 같이 생각한다. 이 三界에 속하는 것, 이것은 오직 마음뿐(唯心)이다.”)

50) 최종남, “時代別 唯心思想의 展開와 變容,” 『高麗 諸宗教藏과 華嚴經 章疏』 (서울: 고려대 장경연구원, 2014), 186-187 참조.

## 2.2.2 「강원각경발사」에 있어서 의천의 견해

의천의 대각국사문집 권3에는 「강원각경발사」<sup>51)</sup> 2수가 수록되어 있다. 이 글은 의천이 후학들에게 「원각경」을 강의한 후 소회하면서 기록한 글로서 아함·계율·화엄·중관·기신론·유식·원각경 등의 사상 등을 인용하면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강원각경발사」<sup>52)</sup>에서 의천은 유식사상의 二空, 第8識, 4智, 그리고 六波羅密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이에 二空과 八識으로 미혹의緣이 일어남을 끊고, 四智의菩提와 六波羅密은 법상종의 원류이다. ...”

위의 내용에서 의천은 법상종의 주요 사상으로서 4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즉, 수행에 의해 我空과 法空인 二空이 됨을, 제8식이 청정해지면 번뇌의 미혹이 소멸되어 번뇌가 형성되지 않음을, 수행에 의해 5位の 계위<sup>53)</sup>에서 얻어지게 되는 네 가지의 지혜를, 그리고 오위 중에서 자량위에서 행하게 되는 육바라밀을 각각 언급하고 있다.

二空은 오위 중에서 4번째인 수습위에서 我執과 法執을 수행하므로 인하여 二空을 얻게 된다.<sup>54)</sup> 그리고 네 가지의 지혜는 大圓鏡智(adarśajñāna)·平等性智(samatajñāna)·妙觀察智(pratyaveśajñāna)·成所作智(kṛtyānuṣṭhāna-jñāna)이다.<sup>55)</sup> 대원경지는 대원경의 거울과 같이 있는 그대로 대상을 보는 지혜

51) 『韓國佛教全書』 第四冊, 531上17-532上14.

52) 『韓國佛教全書』 第四冊, 531下20-21: ... 乃二空八識 斷惑緣生 四智菩提 六波羅密 罄法相宗之源流也 ...

53) 大正藏31, 48中11-15: 何謂悟入唯識五位. 一資糧位. 謂修大乘順解脫分. 二加行位. 謂修大乘順決擇分. 三通達位. 謂諸菩薩所住見道. 四修習位. 謂諸菩薩所住修道. 五究竟位. 謂住無上正等菩提.

54) 최중남 편, 『유식사상 자료집』 (김포: 중앙승가대학교), 107 참조.

55) 大正藏31, 56上12-中3: 云何四智相應心品. 一大圓鏡智相應心品. 謂此心品離諸分別. 所緣行相微細難知. 不妄不愚一切境相. 性相清淨離諸雜染. 純淨圓德現種依持. 能現能生身土智影. 無間無斷窮未來際. 如大圓鏡現衆色像. 二平等性智相應心品. 謂此心品觀一切法自他有情悉皆平等. 大慈悲等恒共相應. 隨諸有情所樂示現受用身土影像差別. 妙觀

로서 구경위에서, 평등성지는 주체와 객체를 평등으로 보는 지혜를 얻는 것으로서 통달위에서, 묘관찰지는 6식을 無漏로 바꾸어, 의식이 대상의 실체를 관찰하는 능력으로서 통달위에서, 그리고 성소작지는 번뇌를 일으키는 前五識을 지혜의 행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수습위에서 각각 증득하게 된다.

『강원각경발사』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제8식이다. 제8식(ālayavijñāna) 설은 인도 대승 유식에서 세간과 출세간의 일체 선업·악업·무기 종자들을 두루 맡아 지니고 있기 때문에 種子識, 생과 사를 이끌고, 선과 불선업의 異熟果를 얻기 때문에 異熟識, 그리고 최고로 청정해서 모든 無漏法(=지혜)의 의지처가 되기 때문에 無垢識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sup>56)</sup>

그러나 중국불교사에 있어서 6세기에 진제가 『攝大乘論』을 역경(563년)하여 섭론종을 만들고,<sup>57)</sup> 그리고 『瑜伽師地論』, 『攝決擇分』을 분리하여 『決定藏論』으로 역경하는 과정에서 『轉依』(āśrayaparivṛtti)를 새롭게 제9식으로서 阿摩羅識(amala-vijñāna, 無垢識)으로 제창하므로 인하여<sup>58)</sup> 중국 대승 유식에서 새롭게 제9식설이 전개되었다.

察智不共所依。無住涅槃之所建立。一味相續窮未來際。三妙觀察智相應心品。謂此心品善觀諸法自相共相無礙而轉。攝觀無量總持之門及所發生功德珍寶。於大眾會能現無邊作用差別皆得自在。兩大法雨斷一切疑令諸有情皆獲利樂。四成所作智相應心品。謂此心品爲欲利樂諸有情故。普於十方示現種種變化三業成本願力所應作事。如是四智相應心品雖各定有二十二法能變所變種種現俱生。而智用增以智名顯。故此四品總攝佛地一切有爲功德皆盡。此轉有漏八七六五識相應品。如次而得。

56) 大正藏31, 13下7-22: 然第八識雖諸有情皆悉成就。而隨義別立種種名。謂或名心。由種種法熏習種子所積集故。或名阿陀那。執持種子及諸色根令不壞故。或名所知依。能與染淨所知諸法爲依止故。或名種子識。能遍任持世出世間諸種子故。此等諸名通一切位。或名阿賴耶。攝藏一切雜染品法令不失故。我見愛等執藏以爲自內我故。此名唯在異生有學。非無學位不退菩薩有雜染法執藏義故。或名異熟識。能引生死善不善業異熟果故。此名唯在異生二乘諸菩薩位。非如來地猶有異熟無記法故。或名無垢識。最極清淨諸無漏法所依止故此名唯在如來地有。菩薩二乘及異生位持有漏種可受熏習。未得善淨第八識故 …

57) 최종남, 『時代別 唯心思想의 展開과 變容』, 『高麗 諸宗教藏과 華嚴經 章疏』(서울: 고려대 장경연구소, 2014), 190 참조.

58) 『決定藏論』, 大正藏30, 1020中10-14: 斷阿羅耶識即轉凡夫性。捨凡夫法阿羅耶識滅。此識滅故一切煩惱滅。阿羅耶識對治故。證阿摩羅識。阿羅耶識是無常。是有漏法。阿摩羅識是常。是無漏法。得眞如境道故證阿摩羅識; 崔鍾男, 『白淨に關する一考察』, 『奧田聖應先生頌壽記念インド學佛教學論集』(東京: 佼成出版社, 2014), 758, 각주 30, 31 참조.

진제에 의해 제창된 제9식설은 화엄종의 淨影寺 慧遠(523-592)<sup>59)</sup>과 천태종 智顗(538-597)<sup>60)</sup> 등이 수용하여 그들의 찬술서에서 인용하였다. 그러나 법상종의 현장과 규기, 그리고 서명학파의 원측은 진제의 제9식설을 수용하지 않고, 인도 대승 유식의 제8식설을 지지하였다.

따라서 의천이 『강원각경발사』에서 제8식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진제 섭론종의 제9식설을 수용하지 않고 인도 대승 유식과 법상종 및 서명학파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 된다.

### 2.2.3 「우음일절기담대사」에 있어서 의천의 견해

의천의 대각국사문집 권20에는 「偶吟一絕寄湛大師」<sup>61)</sup>가 수록되어 있다. 이 글은 담 대사에게 보내는 詩로서 7언절구이며 짧게 4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에는 의천의 융회사상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담 대사에게 보내는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명과 용수가 앞 세상을 빛내었고  
무착과 천친(=세친)이 뒷세상을 이었도다.  
지말을 좇으면 비록 종[파]에는 다름이 있다고 말하지만  
어찌 道가 균등한 것에 돌아가지 않겠는가.”

의천은 이 시의 앞부분에서 「대승기신론」의 저자인 마명(Aśvaghōṣa)과 「중론」 등을 저술한 중관학파의 용수(Nāgārjuna)가 대승불교의 초기 부분을 빛냈고, 그리고 이어서 「대승장엄경론」 등을 전술한 유식학파의 무착(Asaṅga)과 무착의

59) 『大乘義章』, 大正藏44, 530中7-17: 眞中分二。一阿摩羅識。此云無垢。亦曰本淨。就眞論眞。眞體常淨。故曰無垢。… 名爲阿梨耶。妄中二分。爲妄與事。眞妄各二故。… 於中分三。一是本識。眞與癡合。二依本識起阿陀那執我之識。三依本識起於六種生起之識。

60) 『金剛明經』, 大正藏39, 4上12-14: 菴摩羅識是第九不動識。若分別之即是佛識。阿梨耶識即是第八無沒識。

61) 『韓國佛教全書』 第四冊, 564中13-15: 馬鳴龍樹光前世 無着天親繼後塵 逐末雖云宗有異 歸元無奈道還均。

친동생으로서 미륵·무착의 원시유식기의 사상을 정리하여 『유식삼십론송』을 저술한 세친(Vasubandhu)이 대승불교 초기에 이어 계속해서 불교사상을 전개했음을 적고 있다. 이것은 시대별 사상적인 전개과정과 논사들 및 그들의 사상에 있어서 수승함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시의 뒷부분에서 의천은 마명, 용수, 그리고 무착·세친의 사상(=종파)이 각각 다르지만 근본은 같음을, 즉 性宗(=『대승기신론』), 空宗(=용수), 相宗(=무착·세친)<sup>62)</sup>이 같음을 융회사상에 입각해서 적고 있다.

### 3. 『신편제종교장총록』에 있어서 유식장소에 대한 분류

의천의 행장과 수학과정, 그리고 그가 남긴 문헌들 중에는 경·론에 대한 언급이 많다. 그러나 이에 비해 장소에 대한 언급과 인용 또한 많다.

특히 유식사상을 언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유식학 경·론의 주석서들인 疏에서 직접 인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의 내용에 의하면 의천은 중국에서 역경된 한자문헌들, 중국화(=변화·변용)된 제종파의 불교 찬술문헌들, 그리고 장소들에 의한 불교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으리라고 본다.

이와 같이 의천은 중국역경사의 고역·구역·신역 시대를 거쳐 종파시대와 함께 다양한 주석서들이 찬술된 문헌들을 접하고 경·율·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서와 주석서들이 대장경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산일을 우려해 제종교장을 편찬하기 위해 『代世子集教藏發願疏』<sup>63)</sup>에서 다음과 같은 발원과 의지를 표현하

62) 이병욱, 『천태사상 연구』(서울: 경서원, 2000), 579 참조.

63) 『韓國佛教全書』 第四冊, 553上6-9: … 雖經論而具矣 然疏鈔以闕如 欲以于古于今大遼大宋 凡有百家之科教 集爲一藏以流通 … ; 그리고 의천은 『代宣王諸宗教藏影印疏』에서도 제종교장의 수집과 편찬에 대한 의지를 적고 있다. 『韓國佛教全書』 第四冊, 553下5-10: … 竊念國家 自從元聖 迄至眇躬 敦衆善以保邦 賴至仁而育物 顯祖則彫五千軸之秘藏 文考乃鏤十萬頌之契經 五文雖布於邇遐 章疏或幾乎墜失 苟存弘護 寔在(卷一五第七張 缺落) (“삼가 국가를 생각하건데 원[효]성[사]로부터 저에게 이르기까지 많은 책을 힘써 가꾸어 나라를 보호하고 至人에 힘입어 사물을 기르려 했습니다. 顯宗은 5000軸의 秘藏을

고 있다.

“비록 經과 論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疏鈔가 결여되었습니다. 예부터 지금까지 요나라(遼)와 송나라(宋)에는 百家들의 科教가 있으니 모아서 一藏을 만들어 유통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천은 『新編諸宗教藏總錄序』<sup>64)</sup>에서 전범함에 있어서 주석서인 章疏의 필요성과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sup>65)</sup>에서는 경·론을 이해함에 있어서 장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일찍이 생각해 이르노니 경·론은 비록 갖추었더라도 章疏가 혹여 없어지면 법을 유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대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經이며, 經을 말미암아 지은 것이 論이다. 經은 論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論은 疏를 기다려 통하며, 疏는 義를 총괄해 드러나며, 義는 스승으로 말미암아 설명된다.”

이에 의천은 36세인 선종 7년(1090) 8월에 석경과 대장경에 입장이 안 되어 유통되고 있던 장소들을 중국·한국·일본에서 수집·정리하여 총 1,010부·4,857권으로 『신편제종교장총록』을 편찬하였다.

『신편제종교장총록』은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1은 대승경전의 장소, 권2는 대·소승율장의 장소, 그리고 권3은 대·소승론의 장소들로 각각 수록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신편제종교장총록』<sup>66)</sup> 권3 중에서 유식학과 장소를 중심으로 분류·고찰하고자 한다. 범위는 『성유식론술기』<sup>67)</sup>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식학과

---

새기셨고, 文宗은 10만 頌의 경전을 새기셨습니다. 正文은 비록 멀고 가까운 데 퍼졌으나 章疏의 경우에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만약 남아 있는 것을 널리 펴고 보호하려면 실로 … (卷1 5第7張 缺落)”).

64) 『韓國佛教全書』 第四冊, 528下13-15: … 嘗竊謂經論雖備 而章疏或廢 則流□無由矣 ….

65) 『韓國佛教全書』 第四冊, 553中18-20: … 且夫佛之說經由經者論 經由論顯 論待疏通 疏總義章 義由師述 ….

66) 『韓國佛教全書』 第四冊, 680上1-697下6.

사상적 토대가 되는 6經 11論 중에서 소송·화엄·인명 관련 찬술 주석서들을 제외하고 유식학파의 원시·조직·발달유식기 논사들인 미륵·무착·세친·안혜·호법(『성유식론』을 포함)에 의해 저술된 인도 대승 유식 문헌에 대한 찬술 주석서들을 중심으로 하며, 그리고 순서는 권차순으로 하고자 한다.<sup>68)</sup>

卷次	經論名	著者	章疏名	著者	卷數
1	解深密經	學派造 <sup>69)</sup>	解深密經疏	元曉	3
1	解深密經	學派造	解深密經疏	圓測	7
3	成唯識論	護法等造	成唯識論述記	窺基	20
3	成唯識論	護法等造	成唯識論了義燈	慧沼	7
3	成唯識論	護法等造	成唯識論演祕鈔	智周	7
3	成唯識論	護法等造	成唯識論義鏡鈔	清素	12
3	成唯識論	護法等造	成唯識論義鏡鈔	澹凝	20
3	成唯識論	護法等造	成唯識論科	從式集 澹凝刪補	5
3	成唯識論	護法等造	成唯識論疏序鈔	從式	1
3	成唯識論	護法等造	成唯識論詳鏡幽微新鈔	詮明	17
3	成唯識論	護法等造	成唯識論應新鈔科文/大科	詮明	5
3	成唯識論	護法等造	成唯識論辯支鈔	義幽	20
3	成唯識論	護法等造	成唯識論科	義幽	7
3	成唯識論	護法等造	成唯識論義溫章	空相	10
3	成唯識論	護法等造	成唯識論疏	圓測	20
3	成唯識論	護法等造	成唯識論綱要	道證	13
3	成唯識論	護法等造	成唯識論要集決明章	神雄	4
3	成唯識論	護法等造	成唯識論要集略	神雄	10

67) 大正藏43, 229下29-230上3: … 又今此論爰引六經。所謂華嚴。深密。如來出現功德莊嚴。阿毘達磨。楞迦。厚嚴。十一部論。瑜伽。顯揚。莊嚴。集量。攝論。十地。分別瑜伽。觀所緣緣。二十唯識。辨中邊。集論等爲證。

68) 唯識藏疏 문헌에 대한 분류 및 정리는 高麗敎藏結集 및 DB構築事業 연구팀, 『高麗 諸宗敎藏 章疏目錄 및 現況』(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13)을 사용하였다.

69) 『해심밀경』의 저자에 대해서는 勝呂 信靜과 같은 견해이다. 勝呂信靜, 『初期唯識思想の研究』(東京: 春秋社, 1989), 290: “…しかし『解深密經』をこのように見ることは、從來、學者の間で一般に經典は一時に成立したものであるよりも、歴史的に増廣されたものと見られている場合が多く、『解深密經』も後者のように考えられている節がある…” ; 최종남, “티베트어譯『解深密經』, 『blo gras yañs pa』章 한글역,”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논문집』, 제10집(2003), 261 참조.

卷次	經論名	著者	章疏名	著者	卷數
3	成唯識論	護法等造	成唯識論疏	玄範	20
3	成唯識論	護法等造	成唯識論貶量	憬興	25
3	成唯識論	護法等造	成唯識論古跡記	太賢	10
3	成唯識論	護法等造	成唯識論開發章	窺基	4
3	成唯識論	護法等造	成唯識論掌中樞要	窺基	4
3	成唯識論	護法等造	成唯識論義津鈔	藏用	6
3	成唯識論	護法等造	成唯識論集解	惠素	3
3	成唯識論	護法等造	成唯識論義苑鈔	悟眞	3
3	成唯識論	護法等造	成唯識論廣述	神雄	6
3	成唯識論	護法等造	成唯識論宗要	元曉	1
3	成唯識論	護法等造	成唯識論別章	圓測	3
3	成唯識論	護法等造	成唯識論要決	遁倫	2
3	成唯識論	護法等造	成唯識論決擇	太賢	1
3	大乘百法明門論	世親	百法明門論決頌	窺基	1
3	大乘百法明門論	世親	百法論述記	窺基	2
3	大乘百法明門論	世親	百法論顯要鈔	義幽	5
3	大乘百法明門論	世親	百法論科	義幽	2
3	大乘百法明門論	世親	百法論疏	義忠	2
3	大乘百法明門論	世親	百法論聚拾鈔	崇璉	16
3	大乘百法明門論	世親	百法論鈔	景猷	16
3	大乘百法明門論	世親	百法論金臺義府	詮明	15
3	大乘百法明門論	世親	百法論科/大科	詮明	3
3	大乘百法明門論	世親	百法論綱要略釋	智因	1
3	大乘百法明門論	世親	百法論疏	圓測	1
3	大乘百法明門論	世親	百法論總述	義寂	3
3	大乘百法明門論	世親	百法論注	義寂	1
3	大乘百法明門論	世親	百法論記	亡名	1
3	瑜伽師地論	彌勒	瑜伽師地論略纂	窺基	16
3	瑜伽師地論	彌勒	大乘瑜伽劫章頌	窺基	1
3	瑜伽師地論	彌勒	瑜伽論疏	智周	40
3	瑜伽師地論	彌勒	瑜伽師地論義演	清素	40
3	瑜伽師地論	彌勒	瑜伽師地論義演科/中科/大科	澄淨	16
3	瑜伽師地論	彌勒	瑜伽論心鏡記	惠潭	4
3	瑜伽師地論	彌勒	瑜伽論戒地品義記	志隱	3
3	瑜伽師地論	彌勒	瑜伽論科/大科	志隱	2
3	瑜伽師地論	彌勒	瑜伽論鈔	志隱	3
3	瑜伽師地論	彌勒	瑜伽論疏	惠景	20
3	瑜伽師地論	彌勒	瑜伽論記	遁倫	24
3	瑜伽師地論	彌勒	瑜伽論疏	神泰	10

大覺國師 義天과 唯識章疏에 관한 一考

卷次	經論名	著者	章疏名	著者	卷數
3	瑜伽師地論	彌勒	瑜伽論劫彼羅義章	神泰	1
3	瑜伽師地論	彌勒	瑜伽論疏	玄一	17
3	瑜伽師地論	彌勒	瑜伽論疏	憬興	10
3	瑜伽師地論	彌勒	瑜伽論鈔	本立	10
3	瑜伽師地論	彌勒	瑜伽論羽足鈔	極太	5
3	瑜伽師地論	彌勒	瑜伽論古跡記	太賢	4
3	瑜伽師地論	彌勒	瑜伽論文跡	惠景	1
3	大乘五蘊論	世親	五蘊論古跡記	太賢	1
3	顯揚聖教論	無着	顯揚論古跡記	太賢	2
3	攝大乘論	無着	攝大乘論世親釋論疏	法常	16
3	攝大乘論	無着	攝大乘論世親釋論略記	元曉	4
3	攝大乘論	無着	攝大乘論世親釋論古跡記	太賢	1
3	攝大乘論	無着	攝大乘論無性釋論疏	智儼	4
3	攝大乘論	無着	攝大乘論無性釋論疏	神廓	14
3	攝大乘論	無着	攝大乘論無性釋論古跡記	太賢	1
3	攝大乘論	無着	攝大乘論義章	道基	10
3	攝大乘論	無着	攝大乘論略章	法常	4
3	攝大乘論	無着	攝大乘論名教	亡名	1
3	大乘阿毘達磨雜集論	安慧	雜集論疏	玄範	16
3	大乘阿毘達磨雜集論	安慧	雜集論古跡記	太賢	4
3	中邊分別論	世親	中邊分別論疏	元曉	4
3	中邊分別論	世親	中邊論料簡	玄一	1
3	中邊分別論	世親	中邊論古跡記	太賢	1
3	唯識二十論	世親	唯識二十論古跡記	太賢	1
3	大乘成業論	世親	成業論古跡記	太賢	1
3			九識章	眞諦	3

이상과 같이 「신편제종교장총록」 권3에는 대승의 始教<sup>70)</sup>인 유식학파의 경·론들 중에서 11개에 대한 장소가 수록되어 있다. 총 83부·661권<sup>71)</sup>으로서 「신편

70) 「韓國佛敎全書」 第四冊, 529中5-6: … 判唯識瑜伽 爲大乘始敎 ….

71) 「신편제종교장총록」에 수록되어 있는 유식 문헌에 대한 장소의 부·권에 대해서 선행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白性郁博士頌壽記念事業委員會, “大覺國師의 天台의 思想과 續藏의 業績,” 「白性郁博士頌壽記念 佛敎學文集」 (서울: 東國大學校, 1959), 905: 「성유식론」: 29부·266권, 「유가사지론」: 19부·230권, 「섭대승론」: 9부·55권, 「중변분별론」: 3부·5권. ; 김성수, “新編諸宗敎藏總錄의 分類體系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2), 50: 「성유식론」: 29부·266권, 「대승백법명문론」: 14부·69권, 「유가사지론」: 19부·227권, 「대승오온론」 등: 2부·3권, 「섭대승론」 등 9권: 25부·103권.

제종교장총록」에 수록되어 있는 전체 1,101부·4,857권 중에서 8.21%부·13.6% 권에 해당된다. 부·권을 경·론별로 분류하면 「해심밀경」: 2부·10권, 「성유식론」: 29부·266권, 「대승백법명문론」: 14부·69권, 「유가사지론」: 19부·227권, 「대승오온론」: 1부·1권, 「현양성교론」: 1부·2권, 「섭대승론」: 9부·55권, 「대승아비달마집론」: 2부·20권, 「중변분별론」: 3부·6권, 「유식이십론」: 1부·1권, 「대승성업론」: 1부·1권, 「구식장」: 1부·3권이다. 부·권의 장소 양이 많은 경·론은 「성유식론」, 「유가사지론」, 「대승백법명문론」, 「섭대승론」의 順이다.

「신편제종교장총록」에 수록되어 있는 유식학파의 주석서들은 미륵·무착·세친·호법등조에 의해 저술된 경·론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그만큼 동북아시아의 학승들은 이들 논사들이 저술한 경·론들을 중심으로 유식사상을 수학·연찬하였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동북아시아 유식사상의 전개와 발전에 의해 현장(602-664)은 「유가사지론」을 구하러 인도(627-645)로, 그리고 원측, 둔륜(/도륜), 태현, 경흥 등은 유식사상을 수학하고자 중국으로 구법여행을 떠났다.

「신편제종교장총록」의 83부·661권 중에서 중국 찬술 장소의 경우는 섭론종·법상종·서명학파계 찬술서들이 주로 수록되어 있지만 지론종계의 장소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신편제종교장총록」의 유식장소 83부·661권 중의 맨 끝 부분에는 「九識章」(권3)이 수록되어 있다. 「구식장」은 인도 優禪尼國(Ujjayani)의 바라문 출신으로 중국에서 548년(입국)부터 569년(1월 1일 입적)까지 52부·121권을 역경한 진제가 찬술한 주석서이다.<sup>72)</sup> 「구식장」은 명칭과 권수가 다르게 「歷代三寶紀」<sup>73)</sup>에서는 「九識義記」(권2), 「華嚴宗章疏并因明錄」<sup>74)</sup>에서는 「九識論」(권2)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sup>75)</sup>

；이만, 「한국유식사상」(서울: 장경각, 2000), 381: 「성유식론」: 29부·266권, 「유가사지론」: 19부·230권, 「섭대승론」: 9부·55권. ; 최애리, 「新編諸宗教藏總錄의 편성체계 연구」(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6), 57: 「유가사지론」: 19부·227권, 「성유식론」: 29부·266권.

72) 鎌田茂雄, 「中國佛敎史辭典」(東京: 東京堂出版, 1981), 182-183 참조.

73) 大正藏49, 99上12: 九識義記二卷 太淸三年於新吳美業寺出. 태청 3년은 549년임.

74) 大正藏55, 1133上11.

본 주석서는 아쉽게도 동북아시아 어느 국가에도 판본, 혹은 필사본으로도 현존하지 않고 목록들에만 기록되어 있다. 만약 홍왕사 교장도감에서 판각된 장소들 중에서 「구식장」이 현존한다면 세계 유일본으로서 유식사상과 의천 사상을 이해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구식장」은 ‘2.2.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제가 제9식인 아마다식(無垢識)을 제창하기 위하여 찬술한 주석서이다.<sup>76)</sup> 의천은 법상종과 서명학과와 같이 제8식설을 지지하고 있지만 장소의 중요성과 후학들의 경·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집·판각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4. 결론

의천은 생애동안 시대와 사상을 초월하여 학과 및 제종파의 화엄·천태·종관·유식·선·율·인명·정도 등을 수학하고, 후학들을 지도하였다. 그리고 생애동안 다양한 序·辭·表·狀·論·疏文·祭文·詩·書翰·記·碑名 등을, 그리고 시대별·사상별 편저와 역경문헌들을 다수 남겼다. 이와 같은 의천의 행장은 원효 사상을 계승하여 융회사상으로 회향하고자 하는 발원, 그리고 고려 제11대 문종의 아들로서 고국과 고려불교를 중흥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천의 사상은 화엄·천태사상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융회사상과 검학의 입장에서 입승전에는 우상에게, 입승 중에는 혜림과 선연 법사들에게 유식학의 대의를 수학하고 교류하였다. 그 회향으로 의천은 은퇴하여 해인사에 머무르면서 대승의 시종 사상인 유식 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고자하는 간절함과 후학들이 유식사상을 수학함에 있어서 번거로운 이론을 피하고 요의를 명확하게 이해시키고자 하여 1096년에 「간정성유식론단과」를 편찬하였다.

75) 船山徹, 『眞諦三藏研究論集』(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2012), 149 注2) 참조.

76) 勝又俊教, 『佛教における心識說の研究』(東京: 山喜房佛書林, 1961), 692-693 참조.

의천이 남긴 문헌들 중에서 유식사상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는 문헌은 3가지로서 「간정성유식론단과」의 서문에 수록되어 있는 「간정성유식론단과서」, 「강원각경발사」, 그리고 「우음일절기담대사」이다.

「간정성유식론단과서」에서는 유식학을 익히기 위해서는 삼계유식 사상의 토대가 되는 유심사상을 설하고 있는 「화엄경」을 수학하고, 그리고 유식사상과 화엄사상의 성과 상은 하늘의 해와 달, 혹은 주역의 건과 곤과 같이 겸학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시대별·사상별로서는 소승, 시교, 중돈교, 원융의 문의 순서, 즉 「구사론」, 유식사상, 「기신론」, 화엄사상 순으로 수학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의천은 「강원각경발사」에서는 유식학의 중심 사상 중의 하나인 인도 대승 유식의 제8식설과 중국에서 진제에 의해 제창된 제9식설 중에서 인도 대승 유식사상의 제8식설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6세기에 형성된 섭론종 진제의 제9식설을 수용하지 않고 인도 대승 유식사상과 7세기에 형성된 법상종의 현장·규기와 서명학파의 원측이 주장한 제8식설을 지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의천은 「우음일절기담대사」에서 마명, 용수, 그리고 무착·세친은 성종, 공중, 상중으로서 종파는 각각 다르지만 율회사상에 입각해서 근본이 같음을 주장하고 있다.

의천이 선종 7년(1090) 36세에 편찬한 「신편제종교장총록」에는 총 1,010부·4,857권의 장소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장소 중에서 유식 장소는 8.21%부·13.6%권으로서 83부·661권의 장소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 장소 목록 중에는 찬술자의 국가별로 분류하면 중국(唐: 窺基, 慧昭 등; 遼: 詮明, 智因; 南北朝: 法常), 한국(元曉, 圓測, 太賢 등) 스님들에 의해 대부분의 장소들이 찬술되었다. 유식 장소 83부 중에서 제일 많이 주석서가 찬술된 장소는 「성유식론」으로서 총 29부·266권이다. 이어서 「유가사지론」(19부·227권), 「대승백법명문론」(14부·69권), 「섭대승론」(9부·55권) 순으로 장소가 찬술되었다.

이들 83부·661권의 장소 중에는 중국의 지론종, 섭론종, 법상종, 서명학과 중에서 섭론종, 법상종, 서명학과계의 장소들이 주로 수록되어 있지만 지론종계의 장소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유식 장소 중에는 섭론종 진제에 의해 제9식설을 제창하기 위해 찬술된 「구식장」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장소는 의천의 유식사상과는 일치하지 않다. 그러나 의천은 장소의 중요성과 「대선왕제종교장조인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학들이 경·론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목록에 수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의천은 그가 남긴 문헌들 중에서 화엄·천태와 비교하면 유식사상에 대해서 남긴 글과 표현은 아주 적은 양이다. 그렇지만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융회·겸학 사상에 의한 의천의 유식사상에 대한 견해는 성종·공종·상종의 근본이 같으며, 그리고 유식사상이 인도·중국으로 전래하는 과정에 있어서 변용되지 않은 인도 대승 유식사상을 이은 법상종·서명학파의 사상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鎌田茂雄. 「中國佛教史辭典」. 東京: 東京堂出版, 1981.
- 鎌田茂雄. 「初傳期の佛教」. 『中國佛教史』第一卷.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2.
- 高麗敎藏結集 및 DB構築事業 연구팀. 「高麗 諸宗教藏 章疏目錄 및 現況」.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13.
- 김성수.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分類體系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2.
- 김영태. 「한국불교사」. 서울: 경서원, 1986.
- 남권희. “새로 發見된 高麗 續藏經의 覆刻本 3種에 關한 考察.” 『圖書館學論集』 제16호(1989).
- 大屋徳城. 「高麗續藏經造攷」. 京都: 便利堂, 1936.
- 동국대학교 한국불교전서편찬위원회. 「韓國佛教全書」第四冊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82).

- 박용진. 『대각국사문집』.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0.
- 박용진. 『義天 그의 생애와 사상』. 서울: 해안, 2011.
- 白性郁博士頌壽記念事業委員會. “大覺國師의 天台의 思想과 續藏의 業績.” 『白性郁博士頌壽記念 佛教學文集』. 서울: 東國大學校, 1959.
- 보 정. “의천불교사상의 회통적 성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7.
- 桑上正進・袴谷憲昭. 『玄奘』. 東京: 大藏出版, 1981.
- 船山徹. 『眞諦三藏研究論集』.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2012.
- 勝呂信靜. 『初期唯識思想の研究』. 東京: 春秋社, 1989.
- 勝又俊教. 『佛教における心識說の研究』. 東京: 山喜房佛書林, 1961.
- 이 만. 『한국유식사상』. 서울: 장경각, 2000.
- 이병욱. 『천태사상 연구』. 서울: 경서원, 2000.
- 이병욱. 『고려시대의 불교사상』. 서울: 해안, 2002.
- 이병욱 편저. 『의천. 한국의 사상가 10인』. 서울: 예문서원, 2002.
- 이영자. “의천의 천태회통사상.” 『한국천태사상의 전개』. 서울: 민족사, 1998.
- 이영자. 『법화·천태사상연구』.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2.
- 이지관.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 3. 서울: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6.
- 趙明基. 『高麗大覺國師와 天台思想』. 서울: 경서원, 1962.
- 최애리. “新編諸宗教藏總錄의 편성체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6.
- 최종남. “티베트어譯 『解深密經』 『blo gras yañs pa』章 한글역.”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논문집』 제10집(2003).
- 최종남. “광교원본 『성유식론술기』 권6의 판본 대조 연구.” 『고려 제종교장 학술 발표회 -의천의 교장, 천년의 지혜를 미래로-』.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13.
- 崔鍾男. “白淨に關する一考察.” 『奥田聖應先生頌壽記念インド學佛教學論集』. 東京: 佼成出版社, 2014.

최종남. “時代別 唯心思想의 展開와 變容.” 『高麗 諸宗教藏과 華嚴經 章疏』.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14.

최종남 편. 『유식사상 자료집』. 김포: 중앙승가대학교, 2015.

최종남 편. 『역경학개론 수업 자료집』. 김포: 중앙승가대학교, 2015.

